

# 일부 직장인의 구강건강상식 및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도

천석연 · 원복연<sup>1</sup>

대구과학대학치위생과, <sup>1</sup>대전보건대학치위생과

## Affecting factors to oral scaling experience of the part worker

Seok-yeon Cheon · Bok-yeon Won<sup>1</sup>

*Dept. of Dental Hygiene, Taegu Science University, <sup>1</sup>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to company workers' oral scaling related factors and enhance a rate of oral scaling.

**Methods** : From August 2010,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f the about general question items, oral health relation factors, knowledge of periodontal disease for oral scaling performed, in 267 people worker objects.

**Results** :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d of this research.

First, Oral scaling experiences were responded by 205 people(76.8%). Among those prevention the case which enforces with a goal periodically 6 month period 7.3% and the period of 1 years is 28.8%, be most inconvenient is cold(50.7%), with motive is dentistry visits inducement for tooth therapy which 51.2%. Non experience in oral scaling was responded by 62 people(23.2%), 45.2% of whom answered they had no necessity for such treatment.

Second, Knowledge of periodontal disease is 'dental calculus and stain loses toothbrush quality did eagerly' incorrect one right answer ratio is highest with 86.5%, 'Becoming the adult being made to draw out tooth is peri-odontitis than decay' was incorrect one right answer rate was lowest with 62.9%.

Third, The workers' sex, service field, one month average income, Currently the oral inconvenient presence, oral health Interest degree, tooth brushing method, knowledge of periodontiti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oral scaling experience.

**Conclusions** : When seeing with result of above, it is necessary of the oral scaling widely with the method which is various includes a mass communication by causing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oral scaling. The dental hygienist is inconvenience from oral scaling experience have interest when is possible the patient comfortably, in order could be operated, endeavors demanded.

**Key words** : oral scaling experience, worker

**색인** : 스케일링 경험, 영향, 직장인

---

## 1. 서론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치과처치를 수행하는 임상 술식가이며,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자이며, 치과의사의 진료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의료기술 전문가이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 중의 하나인 예방치과처치는 개인을 대상으로 치과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한편 구강조직을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전문적인 처치로 치과의료 현장이나 공중구강보건현장에서 치과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에 주력하기 때문에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과처치는 주로 치과위생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sup>1)</sup>. 스케일링은 일부 치질을 제거하려는 의도는 없는 방법으로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치아면으로부터 치면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이는 구강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단지 잇솔질로 치면을 깨끗하게 하거나 치아의 표면에서 치면 세균막, 치석, 음식물 잔사, 외인성 색소 등의 국소적인 요인을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는 치면세마와는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나 넓은 의미에서 치면세마의 스케일링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치주질환은 소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구강 내에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으로서 유년기에는 비교적 경증의 치주질환이 드물게 발생하나 청년기로부터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성인에서는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sup>3)</sup>. 우리나라 35~44세 연령 군에서 치주조직이 건강한 사람의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치석 부착자의 비율은 52%로 보고되었으며<sup>4)</sup>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고, 40대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대 성인 중 13%는 잇몸 뼈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였다<sup>5)</sup>. 치주질환의 초기는 동통 및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우며, 환자가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을 때에는 질환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고 질환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치면 세균막 제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더욱 쉽게 재발한다고 한다<sup>6)</sup>. 이러

한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잇솔질이라 할 수 있으나 치주질환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1년에 1~2회 정도 전문가에 의한 치석제거가 요구되는 만큼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행함에 있어 직업적인 윤리와 함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sup>7)</sup>.

직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up>8)</sup>. 근로자의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는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뿐 아니라, 치주질환에 기인한 근무이탈을 감소시켜 기업을 발전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sup>9)</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구강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 직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저녁 외식 등으로 인하여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sup>10)</sup>. 그러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하면 스케일링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된 인식과 시술 시의 불편함 때문에 꺼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케일링에 대한 수진 경험에서의 불편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케일링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이유들을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하여 스케일링에 대한 수진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1회성 스케일링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되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무엇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일부 직장인의 구강건강상식과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시에 소재한 S연수원에 연수받기 위해 방문한 직장인 290명을 대상으로 불충분한 응답자 23명을 제외한 267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8월 한 달에 조사대상 직장의 진행요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바로 수거하였다.

## 2.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 고찰<sup>9,11,12,14</sup>을 통하여 선정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일부 이용하고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하면서 느낀 공통적인 내용을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8문항, 구강건강관련사항에 관한 7문항, 치주질환의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10문항, 스케일링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3.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고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구강건강관련사항, 스케일링에 대한 견해, 치주질환 지식 정도 등은 빈도분석 처리하였으며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자가 39.0%, 여자가 61.0%로 여자가 높았으며, 연령 분포는 19~29세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분야는 영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대상자수	%
성별	남	104	39.0
	여	163	61.0
연령	19~29세	101	37.8
	30~39세	51	19.1
	40~49세	72	27.0
	50세 이상	43	1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5	1.9
	고졸	94	35.2
	대졸 이상	168	62.9
근무분야	정규사무직	124	46.4
	영업직	126	47.2
	계약사무직	17	6.4
거주지	대도시	197	73.8
	중·소도시	64	24.0
	군·읍지역, 면지역	6	2.2
결혼여부	미혼	119	44.6
	기혼	148	55.4
한달평균수입	99이하	11	4.1
	100~199만원	46	17.2
	200~299만원	53	19.9
	300~399만원	14	5.2
	400만원 이상	143	53.6
흡연여부	흡연	53	19.9
	비흡연	214	53.6

#### 4 일부 직장인의 구강건강상식 및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도

직이 47.2%, 정규 사무직이 46.4% 순이었으며, 거주지는 대도시가 73.8%로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44.6%, 기혼이 55.4%였고, 한 달 평균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흡연여부는 비 흡연이 53.6%, 흡연이 19.9% 순이었다(표 1).

### 3.2. 구강건강 관련사항

현재 구강 내 불편한 것은 있는지에 대한 자가평가는 '있음' 42.7%, '없음' 57.3%로 '없다'는 의견이 더 많

았고, 구강건강관심정도는 '관심 있음' 61.4%, '보통' 31.5%, '관심 없음' 7.1%순이었으며,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정도는 '보통' 40.8%, '건강함' 36.3%로 나타났고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67.4%로 가장 많았고, 잇솔질 소요시간은 2분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잇솔질 방법에 있어서는 '상하로 닦는다'는 답변이 41.9%로 가장 많았다. 구강위생용품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모든 용품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치간칫솔 32.2%, 구강양치액 28.5%, 치실이 27.3% 순이었다(표 2).

표 2. 구강건강 관련사항

단위 : 명(%)

구분	특성	빈도(%)
현재 구강 내 불편유무	유	114(42.7)
	무	153(57.3)
구강건강관심정도	관심 있음	164(61.4)
	보통	84(31.5)
	관심 없음	19( 7.1)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정도	건강함	97(36.3)
	보통	109(40.8)
	건강하지 않음	61(22.8)
잇솔질 횟수	1회	4( 1.5)
	2회	83(31.1)
	3회이상	180(67.4)
잇솔질 소요시간	1분 미만	28(10.5)
	1분 이상	90(33.7)
	2분	106(39.7)
	3분 이상	43(16.1)
잇솔질 방법	옆으로	33(12.4)
	상하로	112(41.9)
	상하로 회전	85(31.8)
	원을 그리듯이	20( 7.5)
	기타	17( 6.4)
구강위생용품사용 (복수응답)	치실	73(27.3)
	혀세정기	18( 6.7)
	치간칫솔	86(32.2)
	구강양치액	76(28.5)
	워터픽	7( 2.6)
	전동칫솔	38(14.2)

### 3.3. 스케일링 경험자의 스케일링에 대한 견해

스케일링 경험자의 스케일링에 대한 견해 중 ‘스케일링 어땠나’의 질문에 ‘입안의 느낌이 개운해서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 48.3%, ‘잇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 15.6%로 나타났고, 스케일링 시 가장 불편한 것으로는 ‘시큰거림’ 50.7%, ‘기계의 소리에 의한 공포심유발’ 27.8%로 나타났고, 스케일링을 하게

된 동기로는 ‘치아 치료 때문에 치과 방문했는데 권유’ 51.2%,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 33.2%로 나타났고,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로는 ‘잇몸이나 치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방차원으로’ 35.1%, ‘치과 방문 시 권유로’ 25.9%였으며 치석제거 주기로는 ‘몇 년에 한 번’ 42.9%, ‘1년 주기’ 28.8%로 나타났다<표 3>.

표 3. 스케일링 경험자의 스케일링에 대한 견해

대상자수(N=205)

구 분	응답내용	대상자수	%
스케일링 경험	유	205	76.8
	무	62	23.2
스케일링 어땠나	입안의 느낌이 개운해서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	99	48.3
	잇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	32	15.6
	치아가 시려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31	15.1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13	6.3
	치아가 시리고 불편하지만 잇몸건강을 위해 다시 하겠다.	30	14.6
가장 불편한 것	기계의 소리에 의한 공포심 유발	57	27.8
	시큰거림	104	50.7
	피남	12	5.9
	시술자의 미숙으로 인한 불편함	12	5.9
	물이 넘어갈 것 같은 불편함	20	9.8
동기	치아 치료 때문에 치과 방문했는데 권유	105	51.2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	68	33.2
	주위의 권유로	20	9.8
	TV나 신문, 잡지의 기사를 보고	5	2.4
	기타	7	3.4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	자신이 느끼기에 입에서 냄새가 나서	24	11.2
	다른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6	2.9
	잇몸이나 치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방차원으로	72	35.1
	잇몸에서 피가 나서	24	11.7
	치아의 착색물 때문에(ex. 니코틴 착색)	26	12.7
	치과 방문 시 권유로	53	25.9
	기타	27	13.2
치석제거 주기	6개월 주기	15	7.3
	1년 주기	29	28.8
	2년 주기	16	7.8
	몇 년에 한 번	88	42.9
	기타	27	13.2

### 3.4. 스케일링 비경험자의 하지 않는 이유

스케일링 비경험자의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2%로 가장 많았고, ‘아플까 봐 겁이 나서’ 19.4%, ‘주위에서 해보니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17.7% 순이었다(표 4).

### 3.5.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상식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항목의 정답자가 ‘치석이나 스테인은 열심히 칫솔질 하면 없어진다’ 86.5%, ‘스케일링을 하면 더 시려서 고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5%,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 주변의 잇몸까지 망가트린다’ 85%로 많았고, 오답자는 ‘스케일링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7.1%,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이다’ 37.1%로 많았다(표 5).

### 3.6. 일반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표 6>과 같다.

성별에서 남자는 67.3%, 여자에서는 82.8%로 남자보다 여자의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49세가 81.9%, 50세 이상이 79.1%, 19~29세가 74.3%, 30~39세가 72.5%로 40~49세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80.8%, 대졸 이상이 74.4%로 고졸 이하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분야 중 계약사무직이 84.6%, 영업직이 81%, 정규사무직 73.4% 순으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대도시(76.6%)나 중·소도시(79.7%)가 군·읍지역(50%), 면지역(50%)보다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

표 4. 스케일링 비경험자의 하지 않는 이유(스케일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응답내용	대상자수(n=62)	%
스케일링에 대해 잘 몰라서	8	12.9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8	45.2
비용이 비싸서	2	3.2
아플까 봐 겁이 나서	12	19.4
주위에서 해보니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11	17.7
기타	1	1.6

표 5. 직장인의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상식

단위 : 명(%)

	정답자	오답자	계
1. 스케일링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68(62.9)	99(37.1)	267(100.0)
2. 스케일링을 하면 더 시려서 고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227(85.0)	40(15.0)	267(100.0)
3.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이 벌어져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212(79.4)	55(20.6)	267(100.0)
4. 치석이나 스테인은 열심히 칫솔질 하면 없어진다. (×)	231(86.5)	36(13.5)	267(100.0)
5. 한번 나빠진 잇몸은 치료받으면 처음 잇몸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	175(65.5)	92(34.5)	267(100.0)
6.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약으로 예방된다. (×)	217(81.3)	50(18.7)	267(100.0)
7.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이다. (×)	168(62.9)	99(37.1)	267(100.0)
8.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 주변의 잇몸까지 망가트린다. (O)	227(85.0)	40(15.0)	267(100.0)
9. 칫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O)	219(82.0)	48(18.0)	267(100.0)
10. 칫솔질과 치실 사용은 충치 예방보다 잇몸병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 (O)	187(70.0)	80(30.0)	267(100.0)

고, 결혼여부는 기혼(81.1%)이 미혼(71.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달 평균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86.7%, 100~199만원이 73.9%, 200~299만원이 66%, 300~399만원이 50%, 99만원 이하가 45.5% 순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00만원 이상에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여부 중 비흡연이 79%, 흡연이 67.9%로 비흡연자에게서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에서

는 성별, 근무분야, 한달평균수입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 < 0.05$ ).

### 3.7. 구강건강 관련사항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 관련성

구강건강 관련사항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표 7>과 같다.

현재 구강 내 불편이 있는 군 중 ‘스케일링 경험이 있다’ (87.7%), ‘스케일링 경험이 없다’ (68.6%)로 구강 내

표 6. 일반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일반적 특성	스케일링 경험		p-value	
	있음	없음		
성별	남	70( 67.3)	34(32.7)	0.003
	여	135( 82.8)	28(17.2)	
연령	19~29세	75( 74.3)	26(25.7)	0.557
	30~39세	37( 72.5)	14(27.5)	
	40~49세	59( 81.9)	13(18.1)	
	50세 이상	34( 79.1)	9(20.9)	
교육수준	고졸 이하	76( 80.8)	23(19.2)	0.231
	대졸 이상	129( 74.4)	39(25.6)	
근무분야	정규사무직	91( 73.4)	33(26.6)	0.037
	정규생산직	1( 25.0)	3(75.0)	
	계약사무직	11( 84.6)	2(15.4)	
	영업직	102( 81.0)	24(19.0)	
거주지	대도시	151( 76.6)	46(23.4)	0.437
	중·소도시	51( 79.7)	13(20.3)	
	군·읍지역	2( 50.0)	2(50.0)	
	면지역	1( 50.0)	1(50.0)	
결혼여부	미혼	85( 71.4)	34(28.6)	0.063
	기혼	120( 81.1)	28(18.9)	
한달평균수입	99이하	5( 45.5)	6(54.5)	0.000
	100~199만원	34( 73.9)	12(26.1)	
	200~299만원	35( 66.0)	18(34.0)	
	300~399만원	7( 50.0)	7(50.0)	
	400만원 이상	124( 86.7)	19(13.3)	
흡연여부	흡연	36( 67.9)	17(32.1)	0.088
	비흡연	169( 79.0)	45(21.0)	

8 일부 직장인의 구강건강상식 및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도

불편이 있는 군이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관심정도에서 '관심 있음' 이 84.8%, '보통' 70.2%, '관심 없음' 36.8%로 '관심 있음' 이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정도는 '건강하지 않음' 78.7%, '보통' 78%, '건강함' 74.2%로 건강하지 않으면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고,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 77.8%, '2회' 75.9%,

'1회' 50%로 3회 이상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다. 잇솔질 방법은 '상하로' 83.9%, '상하로 회전' 80%, '옆으로' 60.6%로 상하로 잇솔질 하는 군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다.

구강건강 관련사항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에서는 현재 구강 내 불편 유무, 구강건강관심정도, 잇솔질 방법 등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 < 0.05$ ).

표 7. 구강건강 관련사항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구강건강 관련사항	특성	스케일링 경험		p-value
		있음	없음	
현재 구강 내 불편유무	유	100(87.7)	14(12.3)	0.000
	무	105(68.6)	48(31.4)	
구강건강관심정도	관심 있음	139(84.8)	25(15.2)	0.000
	보통	59(70.2)	25(29.8)	
	관심 없음	7(36.8)	12(63.2)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정도	건강함	72(74.2)	25(25.8)	0.753
	보통	85(78.0)	24(22.0)	
	건강하지 않음	48(78.7)	13(21.3)	
잇솔질 횟수	1회	2(50.0)	2(50.0)	0.418
	2회	63(75.9)	20(24.1)	
	3회 이상	140(77.8)	40(22.2)	
잇솔질 소요시간	1분 미만	22(78.6)	6(21.4)	0.844
	1분 이상	67(74.4)	23(25.6)	
	2분	84(79.2)	22(20.8)	
	3분 이상	32(74.4)	11(25.6)	
잇솔질 방법	옆으로	20(60.6)	13(39.4)	0.011
	상하로	94(83.9)	18(16.1)	
	상하로 회전	68(80.0)	17(20.0)	
	원을 그리듯이	12(60.0)	8(40.0)	
	기타	11(64.7)	6(35.3)	

표 8.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스케일링 경험		p-value
	없음	있음	
8점 이하인 군	110(68.3)	51(31.7)	0.000
9점 이상인 군	95(89.6)	11(10.4)	

### 3.8.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 의 관련성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 의 관련성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정답이 총 10점에서 평균 8점으로 나타나 8점을 기준으로 8점 이하인 군과 9점 이상인 군으로 분류하였고,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이 '8점 이하인 군'인 군 68.3%, '9점 이상인 군' 89.6%로 지식이 높을수록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 < 0.05$ ) (표 8).

## 4. 총괄 및 고안

치주질환의 초기에는 동통 및 자각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쉬우며, 환자가 증상이 있어 내원했을 때는 질환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고 질환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치면 세균막 제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더욱 쉽게 재발한다. 이러한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잇솔질이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될 수 없으므로 1년에 1~2회의 스케일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직장인의 스케일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자의 스케일링 경험률은 76.8%로 이는 정 등<sup>11)</sup>의 연구에서의 경험률 37.4%, 윤 등<sup>12)</sup>의 연구에서의 경험률 68.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주 대상이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자주 대하는 영업직이 많고, 대도시의 거주자가 많으며, 1회 이상의 스케일링 경험을 기준으로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스케일링이 어땠는지의 질문에 '입안의 느낌이 개운해서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 '잇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 다음에 다시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많아 다행이지만 '치아가 시려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치아가 시리고 불편하지만 잇몸건강을 위해 다시 하겠다'는 답변보다 많아 왜 시릴 수밖에 없는지, 시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초음파 치석제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시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수기기로 제거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는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스케일링 시 가

장 불편한 것으로는 '시큰거림'과 '기계소리에 의한 공포심 유발'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환자의 공포심 유발을 최소화하는 장비의 개발이 절실하고 치석제거 동기는 '치아 치료 때문에 치과 방문했는데 권유'가 51.2%,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가 33.2%였는데 이는 윤 등<sup>12)</sup>의 연구 스스로 결정한 경우 54.0%, 치과에서의 권유 33.8%인 점을 볼 때 개인에게 스케일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과 방문 환자 중 스케일링이 꼭 필요한 환자인 경우는 정기적으로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스케일링을 경험한 비율이 7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42.9%)을 차지해서 치과 병·의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리콜 시스템을 적용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케일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경험자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2%, '아플까 봐 겁이 나서' 19.4%, '주위에서 해보니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어서'라는 의견이 '비용' (3.2%)이나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모른다' (12.9%)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윤 등<sup>12)</sup>의 연구에서 비용 38.7%와 비교하면 비용부담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맞벌이로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 53.6%를 차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의견은 45.2%로 윤 등<sup>12)</sup>의 연구 45.7%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필요성을 동기부여 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며 '아플까봐 겁이 나서' 45.2%, '주위에서 해보니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17.7%라는 의견은 가능하다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스케일링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우리 치과 위생사의 몫인 것 같다.

구강건강 관련사항에서는 구강건강관심정도는 '관심 있음' 61.4%로 높은 구강 관심도를 보였고, 잇솔질 횟수도 '3회 이상'이 67.4%로 정 등<sup>11)</sup>의 연구에서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잇솔질 소요시간은 '3분 이상' 16.1%, 잇솔질 방법은 '상하로 회전' 31.8%로 잇솔질 교육을 할 때 '회전'의 방법을 강조하여 구석구석 빠트리지 않고 닦는 방법을 교육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상식은 10개 항목에 걸쳐 질문

을 하였는데 정답률이 모두 62.5% 이상으로 지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이다’, ‘스케일링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항목은 다른 것에 비해 지식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성별에서 남자는 67.3%, 여자에서는 82.8%로 남자보다 여자가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고 이는 여자의 스케일링 경험이 박 등<sup>13)</sup> 22.7%, 정 등<sup>11)</sup> 67.5%인 것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대도시(76.6%)나 중·소도시(79.7%)가 군·읍지역(50%), 면지역(50%)보다 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군·면지역 주민들이 스케일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함이 필요하다.

구강건강관련 사항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구강 내 불편이 없으면, 구강건강관심 정도에서 관심이 없으면, 자신이 느끼는 구강건강정도가 건강하면 스케일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 내 불편한 곳이 없어도, 구강건강이 건강해도 치주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의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다는 의식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그 역할을 치과위생사들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거주지가 대도시(73.8%), 중·소도시(24.0%) 직장인이 주를 이루어서 군·읍지역, 면지역의 직장인들은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과 한 달 평균수입이 400만원 이상이 53.6%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장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저소득군에 해당하는 직장인과 군·면 지역의 주민들을 조사하여 정확한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스케일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볼 때 남성, 근무 분야 중 사무직, 흡연하는 사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구강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한다면 스케일링에 대한 수진율을 높일 수 있고 시술을 마치고 나서는 환자들에게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불편함과 주의사항, 올바른 잇솔질을 포함한 구강 관리 방법을 세세한 부분까

지 설명하고, 적절한 리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한다면 치주질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의 스케일링에 대한 수진 경험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케일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내어 수진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1회성 스케일링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구강건강증진 행위가 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일링에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05명 76.8%이며, 그 중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6개월 주기는 7.3%, 1년 주기는 28.8%였고 가장 불편한 것은 50.7%가 ‘시림’, 27.8%가 ‘기계의 소리에 의한 공포심 유발’ 이었고 동기로는 ‘치아 치료 때문에 치과 방문했는데 권유’가 51.2%이었다, 스케일링에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62명 23.2%였고 45.2%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9.4%가 ‘아플까 봐 겁이 나서’, 17.7%가 ‘주위에서 해보니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17.7%, ‘비용이 비싸서 부담되어서’ 3.2%로 나타났다.

둘째, 치주질환에 대한 구강상식에서는 ‘치석이나 스테인은 열심히 잇솔질 하면 없어진다’가 틀렸다고 한 정답률이 86.5%로 가장 높았고,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이다’, ‘스케일링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틀렸다고 한 정답률이 62.9%로 가장 낮았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에서 남자는 67.3%, 여자에서는 82.8%로 남자보다 여자가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고, 거주지는 대도시(76.6%)나 중·소도시(79.7%)가 군·읍지역(50%), 면지역(50%)보다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다. 스케일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성별( $p=0.003$ ), 근무분야( $p=0.037$ ), 한 달평균수입( $p=0.000$ ) 등이었다.

넷째, 스케일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구강건강 관련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현재 구강 내 불

편 유무( $p=0.000$ ), 구강건강관심 정도( $p=0.000$ ), 잇솔질 방법( $p=0.011$ ) 등이었다.

다섯째,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중 오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성인이 되어서 이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이다'이며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p=0.000$ )과 스케일링 경험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스케일링의 필요성을 매스컴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보급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함이 절실하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대중들의 스케일링 경험에서의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환자가 편안히 시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강부월, 강재경, 강현경 외 26인. 치과위생학 개론. 4판. 서울: 청구문화사; 2007:11.
2. 원복연, 장계원, 황미영 외 3인. 치면세마론. 4판. 서울: 청구문화사; 2006:12-15.
3. 김종배, 최유진, 문수혁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서울: 고문사; 2002:125-126.
4.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v. 요약본. 서울: 보건복지부; 2004:28-29.
5.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8:66.
6. 조명숙. 스켈링 환자의 구강위생상태 및 치은 출혈과 관련요인. 치과연구 1997;42(5):39-47.
7. 김은주, 구민지, 이선미. 일반인들의 구강건강인식 및 치면세마 인식도 조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08;10(1)22-26.
8. 고소영, 문혁수, 김종배, 백대일. 근로자의 구강보건 의식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2):95-111.
9. 신정제. 직장근로자들의 스케일링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10. Kinneth JR, Sander GREENLAND, timothy LL. Modern Epidemiology. Philadelphia: Wolters Kluwer; 2008:135.
11. 정정옥, 주온주, 우승희. 일부 직장 근로자들의 스켈링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분석. 대한치위생교육학회지 2008;1(8):134-138.
12. 윤영주, 김경원, 황태윤, 이경수. 근로자의 치아 치면세마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3):436-437.
13. 박정순, 이광희, 김선숙. 스켈링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 원광보건대학논문집 1990;13:191-198.
14. 정은경. 제조업 근로자의 치면세마에 대한 형태와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